

대학개혁의 허와 실

노경희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지금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은 저마다 변화의 진통을 앓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지닌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인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학들마다 복수전공제와 부전공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학부제로 전환하면서 학과를 통폐합하기도 한다. 또한 부실 연구소를 정리하기 위해 각종 연구소의 통폐합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원의 조직까지 정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세일즈맨이 되어 동분서주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대학 자체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원인 파악의 과정 없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도 없이 그저 교육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학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학마다 정리해야 할 부실 연구소들이 많다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학과 세분화와 연구소의 증설에 열을 올렸는지, 대학마다 그 원인을 먼저 따지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학마다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어진 예산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학개혁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개혁이고, 그 지침을 따르는 대학 운영자에 의한 개혁이다. 대학평가에서 개혁의 성과에 따라 대학마다 차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개혁이다. 비록 이런 방식의 개혁도 그 방향과 방법이 옳은 것이라면 밀

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없이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학의 근본 기능은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의 개혁이 대학의 근본 기능은 망각한 채 외형적 변화만을 앞세우며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학개혁은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의 지침이 이렇다’, ‘이것이 안 되면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바꾸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는 식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는 지금의 개혁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것이라고 보는 냉소적인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과거 대학에 타율을 강요해 온 교육 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는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이다.

대학개혁은 지금과 같은 지침의 시달 방식과 평가에 의한 지원의 차등화라는 이른바 ‘당근 요법’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이 당장에 외형적인 변화는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졸속한 외형적 변화의 추구에만 매몰되어 대학의 질적 저하가 지금보다도 더해질 위험성도 있다. 진정한 대학개혁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개혁의 효과가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대학에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여러 해 동안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해 줄 고등교육법의 탄생을 기대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실무작업을 거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안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는 그렇게 인색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학은 변화로 인한 진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개혁이 결국 개악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이 대학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받겠다는 것은 바로 개혁에 있어 대학이 책임을 지고 임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확보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 자체의 책임 아래 대학마다 특성 있는 개혁을 해 나가지 않고서는, 다양성이 근간이 될 미래의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

노경희/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 등이 있고, “廢信時研究”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